

설 이후 과일·일부 채소류 가격 하락

주요 농산물 출하물량 증가 겹쳐 대부분 ↓·'금값' 오징어 작은 해동품 위주 거래 다소 안정

설 연휴가 지나고 시장 내 소비 심리 둔화로 대부분의 품목이 하락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반입량에 따라 등락세를 나타냈다.

23일 한국물가협회가 발표한 2월 셋째 주 생활물가 동향에 따르면 축산물 중 돼지고기와 소고기는 대형할인점의 할인행사 종료 및 반입물량 감소로 상승세다.

채소류 중 배추·대파 등은 반입감소로 상승세, 당근·애호박 등은 수요 감소로 하락세에 거래됐다.

배, 사과 등의 과일류는 일반 가정 등의 수요감소로 매기가 한산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수산물 중 오징어는 어획량 부족으로 연일 고가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크기가 작은 해동품 위주로 거래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전체 조사대상 73품목 중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돼지고기·감귤 등 3품목은 상승세, 소고기·오이·꽃고추·배 등 15품목은 하락세를 보였다.

◇축산물
닭고기: 설 연휴가 지나고 소비 심리 둔화로 매기가 한산한 가운데 반입량에 따라 지역별로 등락세를 보였다.

생닭 한 마리(1kg)당 부산·대전은 각각 16.4%·7.1% 내린 4580원·5200원, 대구는 33.4% 오른 5990원에 거래됐다. 서울·광주는 5310원·5990원으로 보합세다.

돼지고기는 시장 내 소비가 한산하지만 대형할인점의 할인행사 종료 및 도축물량 감소 등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울·부산·대구·광주에서 삼겹살(500g)은 7.7%·20.2%·12.5%·11.8% 오른 1만1160원·1만1300원·9450원·9450원에 판매됐다. 대전은 8600원으로 보합세다.

◇채소류
당근은 일반 가정 등의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제주산 출하물량 증가로

하락세를 보였다. 1kg당 서울·대구·광주에서 각각 12.1%씩 내려 2900원에 거래됐다. 부산·대전은 2000원·2900원에 판매되며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오이는 매기가 한산하나 지난 한파의 여파로 생산량이 부족하면서 지역별로 엇갈린 시세를 나타냈다. 서울·광주는 추정 품종(1개)이 8.3%·25.2% 내린 1330원·1190원에 판매됐다. 부산·대구·대전은 9.2%·5%·2.4% 오른 1190원·1250원·1280원에 거래됐다.

애호박도 설 명절 이후 시장 내 수요감소로 재고량이 적체되면서 하락세에 판매됐다.

개당 서울·부산·대구·광주에서 3.3~12.6% 내린 2490~2600원 선에서 거래됐다.

◇과일류
배는 시장 내 수요 감소로 서울·부산·대전에서 개당 8.5%·28.2%·5.6% 내린 3330원·2140원·3400원에 판매됐다. 대구·광주는 3300원·3330원에 거래되면서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말기는 기온이 오르는 등 산지 기상 호조로 출하물량이 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1kg 기준 0.5%·22.4%·6%·3.8% 내린 1만 5900원·1만2400원·1만2450원·1만 5000원에 판매됐다. 서울은 1만5980원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오징어는 어획량 부족으로 연일 고가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크기가 작은 해동품 위주로 거래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마리당 서울·부산·대구에서 0.3%·11.9%·18.4% 내린 3980원·3630원·3980원에 거래됐다. 광주·대전은 3990원·3950원으로 보합세다.

◇수산물
오징어는 어획량 부족으로 연일 고가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크기가 작은 해동품 위주로 거래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마리당 서울·부산·대구에서 0.3%·11.9%·18.4% 내린 3980원·3630원·3980원에 거래됐다. 광주·대전은 3990원·3950원으로 보합세다.

◇수산물
오징어는 어획량 부족으로 연일 고가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크기가 작은 해동품 위주로 거래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마리당 서울·부산·대구에서 0.3%·11.9%·18.4% 내린 3980원·3630원·3980원에 거래됐다. 광주·대전은 3990원·3950원으로 보합세다.

◇수산물
오징어는 어획량 부족으로 연일 고가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크기가 작은 해동품 위주로 거래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마리당 서울·부산·대구에서 0.3%·11.9%·18.4% 내린 3980원·3630원·3980원에 거래됐다. 광주·대전은 3990원·3950원으로 보합세다.

◇수산물
오징어는 어획량 부족으로 연일 고가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크기가 작은 해동품 위주로 거래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마리당 서울·부산·대구에서 0.3%·11.9%·18.4% 내린 3980원·3630원·3980원에 거래됐다. 광주·대전은 3990원·3950원으로 보합세다.

◇수산물
오징어는 어획량 부족으로 연일 고가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크기가 작은 해동품 위주로 거래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마리당 서울·부산·대구에서 0.3%·11.9%·18.4% 내린 3980원·3630원·3980원에 거래됐다. 광주·대전은 3990원·3950원으로 보합세다.

◇수산물
오징어는 어획량 부족으로 연일 고가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크기가 작은 해동품 위주로 거래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마리당 서울·부산·대구에서 0.3%·11.9%·18.4% 내린 3980원·3630원·3980원에 거래됐다. 광주·대전은 3990원·3950원으로 보합세다.

/뉴시스



상경투쟁 출발

지난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GM)지부 군산지회 1000여명의 조합원들이 군산공장 폐쇄 철회 촉구 및 30만 노동자 생존권 인천 결의 대회에 동참하기 위해 24대의 버스에 올라 군산공장 정문을 빠져 나오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서 명품 할인해 샀는데... '짜퉁'

펜디(FENDI) 피해예방주의보 브랜드... 상담 50건 가장 많아

#1. A씨는 지난 4일 SNS를 통해 펜디(FENDI) 가방 할인 광고를 보고 링크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51만9610원에 구입했다. 이후 위안화로 결제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주문취소 절차가 별도로 없었다. 의심한 A씨는 사이트 관리자에게 메일을 보내 환불을 요청했으나 답변은 없었다.

#2. B씨는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골든구스(GOLDEN GOOSE) 신발 할인 광고를 보고 링크에 접속해 대금 129유로(약17만원)를 결제했다. 역시 위안화로 결제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지난 1월10일 주문한 제품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됐고, 사업자에게 메일로 반품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펜디(FENDI), 발렌시아가(BALEN CIAGA), 골든 구스(GOLDEN GOOSE) 등 해외 유명 브랜드 가방 및 신발을 미대륙 할인 판매한다는 SNS 광고를 보고 해외사이트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가품 배송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상담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6일까지 최근 7주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SNS 광고를 통한 해외 유명 브랜드 가방 및 신발 구입 관련 상담은 총 89건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주소(URL)는 다르지만 메인 홈페이지 화면과 사업자 연락처(이메일)가 동일해 같은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이트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펜디(FENDI)는 지난해 6월 한국소비자원이 발령한 피해예방주의보에서도 주의를 당부했던 브랜드다. 관련 상담이 50건으로 가장 많다.

소비자원은 검증 절차를 통해 사기 의심 사이트로 판단될 경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해당 사이트명을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장 감시, 관계기관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해외구매 소비자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 의심, 연락두절 등 피해발생 시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참고하여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www.jjmaeil.com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 등 추진”

국토부, 6개 기관과 협약 체결

정부가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 등을 위해 관계 기관들과 함께 힘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와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 협약을 23일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6개 기관은 앞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 인권 존중을 위해 각자 역할을 다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공동주택은 그 자체가 작은 하나의 사회”라면서 “국민 75%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상생을 실현해

간다면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협약에 따른 첫 번째 과제로 경비원 고용 안정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단지들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해 입주 주민 분담, 관리비 절감, 경비원 출퇴근제 도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주주민과 경비원들이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고 있다”며 “각각 사례들은 단지 규모, 입주 시기, 세대당 경비원 수, 현재 경비원 고용형태, 단지 주변 환경 등 단지별 특성에 따라 다른 단지들에도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제보 288-9700

농어촌공 전복,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 앞장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3일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올해 농촌용수와 배수개선·경지재정리사업 등 생산기반정비사업에 12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사업은 세부적으로 보면 다목적 농촌용수개발과 농촌용수이용 체계개선 사업에 616억원 투입해 농업용수 확보 시설을 구축한다.

또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침수

지역에는 530억원의 예산을 들여 배수개선사업을 벌이고, 농업생산성 향상 및 기계화 영농체계를 구축한다.

김준채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장은 “사업추진시 지역주민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현장 안전 관리·품질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무재해·무결점 현장관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정부, '50년 만기 국고채'... 3월 중순에 1차 발행

정부는 올해 50년 만기 국고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발행규모는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발행 3~4일전에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결정한다.

정부는 분기별 50년 만기 국고채 발행 여부, 시기 등을 긴밀히 협의하기 위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50년물 투자자협의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1차로 3월 중순 경정입

할 방식으로 발행한다. 발행규모는 발행 직전 수요조사 실시 후 결정해 공지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50년 만기 국고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정부의 채무관리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초장기 자산의 준거 금리를 제공해 초장기 공산채·회사채 발행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